불교계 숙원 풀다…검인정 종교교과서 출간

조계종, 동국대 등 제작 추진
고등학교 교과서 '삶과 종교'
세종시교육청 최종 합격 공고
2026년부터 종립학교서 활용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교육 내 검인정 종교교과서가 출간돼 내년부터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와 동국대 출판문화원(원장 박기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불교교육연합회가 개발한 종교교과서 〈삶과 종교〉를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로 최종 합격을 공고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불교계는 과거 두 차례 검인정 교과서를 만들려 했으나 거듭 실패했다. 2015년과 2022년 제작된 교과서는 객관성과 형평성 부족으로 검인정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 인정도서 심의에 최종 합격함으로써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

동국대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종교교과서 제작 프로젝트를 지난해 12월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어 동국대가 중심돼 불교교육연합회가 집필에 나섰고,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이 편집 등 제작 전반을 진행했다.

집필에는 김경래(동국대 불교대학)·문현공(동국대 불교대학)·이학주(동국대부속가람고)·양동효(의정부광동고)·김윤경(동국대부속가람중)·김세연(동국대부속중)·우수형(동국대부속고)·손범준(광동중)·김가연(광동고)·이범욱(광동고)·김덕진(동국대부속고)·권진영(동국대부속영석고) 등 불교교육연합회 소속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와 종립학교 교법사단 12명이 참여했다. 또한 조계종 포교부도 적극 지원하는 등 집필과 편집까지 1년여 간의 노력 끝에 종교교과서가 완성됐다. 심의본 접수 이후에는 2차례에 걸친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쳤으며, 세종시교육청의 심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공식 교과서의 지위를 얻었다.



불교교육연합회가 발간한 〈삶과 종교〉는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지침을 기초로 단위를 구성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배움의 과정을 성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전개 방식을 설계했다. 해당 교재는 △제1장 인간과 종교 △제2장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 △제3장 종교 문화유산 △제4장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인정도서 심의를 합격한 〈삶과 종교〉는 내년부터 불교법인 산하 종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종교 교과서로 활용된다.

불교교육연합회장인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불교교육 종사자들의 합심과 연대로 불교인의 시각에서 불교를 가르칠 수 있는 학습교재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며 "동국대의 교육이념을 더욱 널리 필칠 수 있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이번 인증 교과서 합격은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학생들이 종교와 삶을 균형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효 교법사단장도 "현장 교법사들이 직접 참여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과서를 만들 수 있었다"며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종교 이해와 인성교육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최응천 석좌교수 임명 기념 특강

9월 3일 국가유산청장 퇴임 기념
"K-헤리티지 가치 세계 알려야"



초대 국가유산청장을 지낸 최응천 전 청장의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임용을 기념하는 특강이 열렸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9월 3일 혜화관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최응천 석좌교수 임명 기념 특강'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최 교수는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K-헤리티지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주제로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개편한 의미부터 우수한 한국 전통문화유산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까지 다양한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최 교수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굿즈 브랜드 '뮷즈'가 내놓았던 '까치호랑이 배지'에 주목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즈'의 더피(호랑이)와 수지(까치)를 닮은 '까치호랑이 배지'는 한해 매출이 70만원 정도였지만 영화의 흥행 이후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뮷즈'가 출시한 '취객 선비 변색잔 3종 세트'도 소개했다. 차가운 술을 따르면 잔에 그려진 선비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해당 굿즈는 출시 즉시 품절되는 인기 상품이다.

최 석좌교수는 "'취객 선비' 굿즈는 청장 재직 시절 구해달라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는 해외에서 만난 인사들도 구입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으로 굿즈 판매량 늘고 박물관 입장객이 증가한 것을 '숟가락 얹은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문화유산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면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를 되새기고 문화유산의 새로운 미래적 가치를 발굴·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과제이자 화두"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10돌 한국명상지도자協, 전문 지도사 배출학교 연다

명상지도자학교, 9월 20일 개강
전문 트레이너 · 디렉터 자격반

명상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한 명상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2015년 출범한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적경 스님)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국명상지도자학교'를 개설하고 체계적인 명상지도자 양성에 나선다.

한국명상지도자학교는 '명상전문지도사 트레이너 자격반'과 '명상전문지도사 디렉터 자격반'으로 운영된다.

트레이너 자격반은 명상교육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명상 강사 역량 교육을 중심으로 열린다. 9월 20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매월 첫째 주·셋째 주 토요일 10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서울 충무로 자비선명상센터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명상전문지도사 2급, 1급, 트레이너 자격증 소지자라면 수강 가능하다.

△명법 스님의 '명상지도자의 윤리 에티켓'(온라인) △김재성 교수의 PPT와 AI를 강의에 활용하는 방법(대면) △박희승 총장의 '명상 프로그램 기획, 홍보 방법-보도자료 작성 및 SNS 활용법'(온라인) △ 일중 스님의 '명상 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대면) 등으로 진행된다.

'명상전문지도사 디렉터 자격반'은 명상 교육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지도 역량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9월 21일부터 2026년 2월 1일까지 매월 첫째주·셋째주 일요일 오후 2~4시 총 10강에 걸쳐 서울 충무로 자비선명상센터와 온라인으로 열린다.

△지운 스님의 '차명상의 이론과 실습'(온라인) △박희승 총장의 '선명상 이론 및 지도법 실습'(온라인) △혜주 스님의 '명상의 과학적인 효과'(대면) 등의 수업이며 2026년 1월 23~25일 열릴 2박 3일 명상지도자 합숙 캠프에 필히 참여해야 한다. 명상지도사 2급, 1급, 트레이너, 디렉터 자격증 소지자면 참가할 수 있으며 타 명상단체 지도사도 청강 가능하다.

명상을 처음 접하거나,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를 정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명상지도자 양성을 위한 명상아카데미 자격 과정 2급, 1급' 가을학기는 10월 22일 개강한다.

10월 22일~2026년 1월 10일 매주 수·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12주간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소속 최고의 명상지도자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진행하며 검증된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본 과정은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며 협회에서 인정하는 명상전문지도사 2급,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협회 홈페이지(www.kamto.net)에서 접수. 02-953-5307

임은호 기자

진흥원, 11기 대원청년불자상 56명 선정

동아리상엔 65개 단체
8월 28일 증서 수여식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8월 28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서 제11기 대원청년불자상·동아리상 공모 수상자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121건의 선정 학생 및 단체에 2억 97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전달했다.〈사진〉

제11기 청년불자상·동아리상은 대학생, 대학원생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불교 동아리 지원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청년불자상 56명(대학생 47명·대학원생 9명), 동아리상 65곳을 최종 선정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각 300만원의 장학금이, 초등학교 불교동아리에 각 50만원, 중·고등학교 불교동아리에 각 150만원, 대학교·대학원 불교동아리에 각 150만원이 전달됐다. 또 선정된 모든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는 별도로 5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추가로 지원했다.

청년불교 활성화와 인재 양성 불사를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대원청년불자상·동아리상 공모 사업은 제1기~제11기(2020년~2025년 하반기)까지 1337건에 대해 총 30억 5750만원을 지원했다.

진흥원은 "올해 공모사업은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신행·수행에 진력하는 학생 및 동아리에 관심을 갖고 심사해 청년불교 포교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진흥원은 학교마다 다수의 동아리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생명나눔, 동국대 일원서 제16회 걷기명상

9월 13일, 10시 만해광장 출발
4km 걸으며 환경보호까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 및 남산 일대에서 '제16회 생명존중 걷기명상&플로깅'을 개최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처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널리 전파해 자살 및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마다 '걷기명상&플로깅'을 개최하고 있다.

걷기코스는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출발해 남산 북측순환로를 걷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며, 환경보호를 위해 플로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해광장에서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생명'을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와 생명존중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마하무용단의 한국무용 공연도 펼쳐진다.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블루투스 헤드폰,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추천도 진행된다. 02-720-7720

임은호 기자

"명상 문화, 종교 넘어 현대적 실천으로"

조계종, 9월 3일 미국불교 세미나
명상 재해석 · 선명상 세계화 제언



미국불교 현황을 통해 현대인을 위한 명상을 재해석하고 선명상 세계화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진성 스님)는 9월 3일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2층에서 미국불교를 주제로 '2025년 해외불교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불교 명상의 현대적 전환과 세속화'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 불교 명상이 세속화, 과학화, 의료화, 산업화되는 과정을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이 어떻게 종교적 수행의 틀에서 벗어나 과학적 연구와 상업적 응용의 대상이 됐는지를 역사적·이론적 맥락 속에서 분석했다.

존 카밧진, 틱낫한, 달라이라마 등 세계적인 불교 인물들 역시 비종교적 명상 프레임을 넘어 명상의 뿌리와 불교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 문진건 교수는 "명상의 세속화는 단순히 종교적 요소가 제거된 표면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불교 내부의 근대화 시도와 서구 심리학·과학의 이론적 해석이 맞물리며 구조화된 복합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미국에서의 마음챙김 명상은 종교, 과학, 산업, 영성의 경계 위에서 재구성되고 있다"면서 "세속적 과정이 아니라 종교적 실천이 다양한 사회적 장 안에서 의미를 전환하며 살아남는 복합적 문화현상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상은 오로지 종교적이거나 과학적인 것, 혹은 산업적 상품만이 아니라 모든 정체성을 교차하며 구성되는 현대적 실천의 장"이라며 "복합성과 유연성은 명상이 미국 종교문화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성청환 동국대 연구교수는 '미국불교와 미국에서의 한국불교'에서 한국불교가 미국 내에서 행해야 하는 지점을 두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방향으로 '온라인'에 주목했다. 성 교수는 "한국불교가 미국인들에게 종교로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지라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있음을 전파할수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문화를 자랑하는 한국의 장점을 활용,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하고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영어 소통이다. 성 교수는 "한국불교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양한 영어 소셜 플랫폼으로 제작해 소통을 시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산사의 아름다움, 예불의 장엄함 등의 비언어적 소통도 결국에는 언어적 소통으로 연결될 때에만 비로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오용석 교수는 '선명상의 세계화에 대한 소고'에서 서구 수행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한국의 전통적인 선불교와 현대의 명상 전통이 융합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선명상과 예술의 접목, 집단지성의 활용 등을 제언했다.

사회부장 진성 스님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재, 한국 전통문화와 한국의 선명상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은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해외불교세미나를 통해 한국불교 세계화의 자료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불자기업, 조계종에 마스크 7만7000장

㈜유바이오메드 9월 2일 후원
산하 복지시설 10개소에 배포



불자기업 ㈜유바이오메드(대표 엄년식)가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 전국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7만7000장을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9월 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마스크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마스크를 후원한 ㈜유바이오메드는 의료기기와 마스크, 화장품,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들이 후원한 마스크 7만 7000장은 지난 5월부터 영통종합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전국 10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배분됐다.

전달식에서 복지재단 이사장 도륜 스님은 자비를 강조하며 "마스크 7만 7000장은 자비심이 형상화 된 소중한 공덕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복지시설과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 가정에 두루 전달돼 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주는 방편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엄년식 ㈜유바이오메드 대표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왔지만 불자로서 불교 단체와 인연을 맺게 돼 더욱 뜻깊다"면서 "작은 나눔이지만 앞으로도 회사 차원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나눔이 있다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